전주승화원 현대화 공동 추진

전주시-완주군, 협약 체결
노후화 따라 2023년까지
전주시민·완주군민
승화원 공동 이용 가능

전주시와 완주군은 14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승화원 현대화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977년에 지어져 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한 전주승화원이 40여년 만에 최신식 화장시설로 탈바꿈된다. 이에 따라 전주승화원을 이용하는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의 장례 편의가 높아지게 됐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14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승화원(화장시설) 현대화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양 시·군은 주민들의 편익 증진 및 품격 있는 장사문화 창출을 위한 4가지 주요 협력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키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시군은 화장시설 현대화사업 공동으로 추진하고, 운영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키로 했다.

또한 사업 공동 추진 시 양 시·군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화장시설 현대화사업비 및 사업 완료 후 화장시설 유지보수비는 양 시·군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공동 부담키로 했다. 양 시·군은 이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약 체결사항을 이행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자체 재정 부담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1977년에 지어진 전주승화원은 건물이 노후화되고 시설이 협소한 관계로 △고인애도 공간 부족 △화장로의 잦은 고장 △봉안당 유골함 잔여기수 부족 등 유족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국비 49억원을 지원받아 현 부지에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봉안당과 장사시설 및 유족대기실, 유택동산 등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전주승화원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그간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이용자의 장례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완주군과의 상생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42년만의 승화원 현대화사업이 추진되면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이 함께 경건하고 품격 있는 장례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완주군과의 상생협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난 민선 6기 때부터 △덕진구 전미동과 삼례읍 하리를 연결하는 하리교 재가설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및 노선개편 △전주광역권 기업유치단 운영 △'혁신도시 주민의 독서문화 확산과 문화체육 향유를 위한 협약' 체결 등 전주시민들과 완주군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동반성장을 꾀하기 위한 상생발전사업을 전개해왔다. /김윤상 기자

'변화하는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전주시립 작은도서관 운영자들, 용인 우수도서관 견학

마을 사랑방인 전주지역 사립작은도서관의 운영자들이 우수사례 학습에 나섰다.

전주시는 14일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경기도 용인시 일원에서 우수도서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째 전주시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견학 프로그램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대표적인 사립공공도서관인 느티나무도서관과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식박물관인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을 차례로 방문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느티나무도서관에서는 △(북컬렉션)장서 개발 워크숍 △(독서동아리)낭+독회 △마을포럼개최 등 다른 도서관과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방법에 대해 배웠다. 또, 느티나무도서관의 도서전시공간 등을 관람하고,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재단관장의 특강도 청취했다.

이어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에서는 '다 같이 놀자, 동네 세바퀴' 기획전시를 관람하고, △바람의 나라 △튼튼놀이터 등 박물관 내 다양한 주제로 꾸며진 전시공간을 방문해 작은도서관 내 어린이들을 위한 전시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이번 견학에 참가한 최현오 동네방네도서관장은 "매년 이어지는 우수도서관 견학을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배워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는 우수도서관 견학이 이어지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

여성친화일촌기업 CEO 교류회 전북광역·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4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여성친화일촌기업 CEO 및 인사담당자 교류회'를 열었다. 사진은 부대행사로 '동아블랙벨트 K-타이거즈' 태권도 시범단의 칼군무 축하공연. 〈관련기사 12면〉

전북 통합건강증진사업 포럼

전북도는 14일 전주 터존에서 14개 시·군 담당 공무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통합건강증진사업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계획 및 2020년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여 업무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시·군별 주요 건강문제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주요 건강문제를 지역별로 분석하여 사업대상(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및 장소별로 특성에 맞는 전략적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한다. /김진성 기자

주차장 화분 훔친 60대 검거

전주완산경찰서는 14일 절도혐의로 A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7시 30분경 완산구 한 원룸 주차장에 보관중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화분을 수레를 사용해 절도한 혐의를 받고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분석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정다은 기자

데이터 기반 신뢰행정 구현 머리 맞대다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정책 전문가 간담회

전주시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14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주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과 경제에 관한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국내·외 동향 및 타지자체, 기관 추진사항 소개 △기업, 전문인력, 대학 등 국내 빅데이터 인프라 현황 △전주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반사항 △국가정책 방향에 따른 전주시 공모대응 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전주시는 14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은 4차 산업혁명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기반 시정체계 마련을 위해 부서별로 분산된 다양한 행정정보를 수집·분석·공유하기 위한 빅데이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시는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공지능팀을 신설해 부서별로 생산되는 행정 데이터의 수집체계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도 개정중이다.

시는 향후 내부·유관기관·민간의 데이터 연계를 추진하고, 시정현안을 고려한 상시 분석모델을 발굴해 시정의 다양한 행정영역에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김윤상 기자

전북 수능 112신고 12건 접수

전북경찰청, 10건 편의 제공
신고 유형별로 수송요청이 최다

2020년도 수능,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침착한 마음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전북경찰이 함께 달렸다.

전북경찰은 14일 수능시험 관련 총 12건이 접수돼 10건의 편의 제공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수능 관련 112 신고는 2018년도 34건, 2017년도 21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신고 유형별로는 수송 요청 7건, 교통 불편으로 2건, 수험표 관련 1건, 시험장 착오가 1건으로 나타났다.

이날 전북경찰은 시험장을 잘못 안 수험생을 태워 주고, 신분증 때문에 입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수험생에게 신분증을 가져다주는 등 수험생들에게 힘을 더했다. /정다은 기자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